



노동 및 근로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 인터뷰

취재 | 정책개발팀 손영선

Q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많은 의정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되기 전에 중앙부처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여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국회와 관련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초선의원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국회의 현황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활동, 의정활동 이라는 것이 법안발의도 해야하고, 만든 법을 통과시키는데도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6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중 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 헌정대상’도 받고,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주는 ‘유권자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의정활동중 특히 기억에 남는 법안은 역시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년연장법’입니다. 60세 정년이 이제까지는 의무 규정이 아니었는데,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신규채용 문제도 잘 풀어 갈수 있게 60이라는 숫자에만 급급해서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고려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활용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 5일제 도입 이후 우리 산업사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뤘다고 할 만한 법이기 때문에 이번일이 공무원 시절을 포함해서 30여년 정도의 공직 생활중 가장 보람을 느낀 일입니다.

Q 의원님께서 노동 및 근로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도 비정규직 등으로 전기업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 現 19대 국회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 現 환경노동위원회위원
- 現 예결특위위원회위원
- 前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10~2012)
- 前 대구지방노동청장(2007~2009)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대구경북 노동청장을 하면서 전기 분야와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경북도회 및 대구시회 총회 때에는 항상 참석해 축하인사도 전하고 전기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전기인들의 권익을 챙기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의 처우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기업에서 활용해야지, 그것을 근로자 처우에서 차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먼저, 결국은 기업이 지불능력이 되어야만 비정규직의 처우도 올라가고 정규직이 되기도

하고 더불어 신규채용을 늘리기도 하는 것이니, 결국 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우리 정치인이 힘을 모아야 하고, 더불어 전력산업도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의원님께서 최근 “직업인의 행복 찾기” 주제로 취업성공 특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전기인들에게도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비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초등학교때 교과서에서 본 ‘노동은 신성하다’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2가지 글귀가 인상 깊었습니다.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니다. 하지만 돈의 유무가 가장 중요할까? 그건 또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일을 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돈을 번다는 의미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며, 그런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때에 어떻게 하느냐? 도살장에 동물 끌러가듯이 출근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자. 이겁니다. 꼭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즐겁게 하자. 그럴려면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98년 IMF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에 버틴 사람들은 일을 즐기면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또 유지를 하려면 내가 하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인이라면 전기에 관한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미지메이킹을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는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다, 활발하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사회생활이 더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실력+좋은 이미지를 갖춘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기인 여러분도 원하는 곳에 취업도 무난히 하고 취업 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Q 의원님의 인생의 좌우명과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 좌우명과 가훈이 똑같습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하자’입니다. 이 말을 결혼 때부터 가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해도 표시 안나는 일이나, 이익 되는 것이 없는 일이라도 내가먼저 앞장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고 그제 쌓이다 보면 또 술선수범 하게 되고, 이게 돌도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실천하면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바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분위기의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0만 전기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노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보다는 살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해보도 중소기업체나 영세업체는 사장님들도 무척 어려운 상황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물며 근로자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졸자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고졸 생산직 연봉이 2000만원이면, 4년 후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을 대졸자와 맞춰줘야 하고, 그 후 또 다시 4년 후에는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덕분에 해외로 수출도 하고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는 등 나라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전력산업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같은 기간 산업입니다. 여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크게 보면 전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수많은 일들 중 몇 개가 어긋나버리면 얼마전 원전 사태처럼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은 미장 하나라도 장인정신을 갖고 작업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00만 전기인들이 국가산업에 종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도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